

# 센터장 칼럼 : 세가지 질문

센터장 최인철 ichoi@snu.ac.kr



##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가 어른들을 위해 쓴 동화책의 제목이다. 책의 내용은 대략 이렇다. 어느 왕이 다음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알면 왕으로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국에 공고를 내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 1)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 2)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 3)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듣게 된 답은 아래와 같았다.

- 1)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 2)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다.
- 3)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톨스토이가 어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행복강의인 셈이다. 최근의 행복심리학 연구에서 내리는 처방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이 책의 가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왕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있다.

중학생용 행복 교과서를 만들면서 담고 싶었던 질문도 다시 생각해보니 세 가지였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인생은 결국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누구와 함께”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생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의해서 결정된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시시한 질문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 겨우 묻는다는 질문이 “돈”이거나 “드라마”이거나 “명품”일 수 밖에 없다. 매일 아침 동료들 만나서 ‘어제 그 드라마 봤니?’ 라고 묻거나 “주식 좀 올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시시할 것이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해볼 직한 일은 나만의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나에게 던지는 빛나는 질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질문을 우리의 자녀에게도 물려주어야 한다. 부의 대물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의 대물림일 것이다.

#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들라

임호성 kmahs@hanmail.net



소개팅 파트너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를 떠올려보자. 우리는 상대방을 처음 보는 찰라에 쾌재를 외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꼭 외모가 말쑥하거나 말쑥하지 못해서 때문은 아니다. 첫인상만으로 상대방의 성격 역시 짐작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짐작한 이 성격이 정말 맞을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연구팀은 실험을 위해 107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스피드 데이트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서로 3분씩 이야기한 후 파트너를 바꾸어 연속해서 대화를 나누었다. 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참가자들은 3분간 이야기하는 파트너의 성격을 짐작해 기록해야 했다. 연구팀은 이 기록을 참가자 각각을 가

장 잘 아는 지인에게 미리 물어본 그들의 성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실험참가자의 성격에 대한 부모 또는 친한 친구의 평가와 3분간 만나서 이야기한 타인의 평가가 거의 일치하였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첫인상을 남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밝고 행복한 미소’가 정답이다. 행복한 미소가 좋은 첫인상을 만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 외에 기억해야 하는 다른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인상을 연구해온 연구팀은 두 가지 간단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행복한 표정과 화난 표정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험참가자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표정이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들라

임호성 kmahs@hanmail.net

제시될 때마다 스피커에서는 높은 톤의 목소리와 낮은 톤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를 들은 실험참가자들은 화면에 제시된 표정을 최대한 빨리 따라 해야 했다. 그 결과 높은 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행복한 표정을 빨리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톤의 목소리를 듣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려 하거나 높은 톤의 목소리를 듣고 화난 표정을 지으려 할 때는 때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다. 즉 행복한 표정과 높은 톤의 목소리가 더 자연스럽게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실험에서도 연구팀은 얼굴을 들고 있는 사진과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있는 사진을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험참가자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얼굴 사진이 제시될 때마다 높은 톤의 목소리와 낮은 톤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역시 실험참가자들은 얼굴 사진을 최대한 빨리 따라 해야 했다. 사람들은 높은 톤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들어야 했을 때는 빠르게 움직였지만, 고개를 숙여야 했을 속도가 느려졌다. 높은 톤의 목소리와 얼굴을 들고 있는 자세가 더 자연스럽게 매칭되기 때문이다.

‘좋은 첫인상의 기본 전제인 행복한 미소와는 높은 톤의 목소리가, 높은 톤의 목소리와는 얼굴을 위로 향한 자세가 더 어울렸다’면 연구팀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조언은 무엇일까? **예상되듯이 “미소를 짓고, 활기를 보여주는 높은 톤의 목소리로 말하고, 자신 있게 얼굴을 들라”는 것이다.**

새해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나 취업을 결심할 것이다. 꼭 결혼이나 취업이 아니더라도 새해에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랄 것이다. 새해에는 사람들

을 만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시간을 좀 더 보내자. 옷 매무새보다도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자세를 점검해보면 바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Horstmann, G., & Ansorge, U. (2011). Compatibility between tones, head movements, and facial expressions. *Emotion*, 11(4), 975.

#

## 소중한 사람이 되는 행복

박슬기 llseulgill@gmail.com



넌 내게는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 없는  
어린애에 지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네가 필요하지 않고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에게 난  
수많은 다른 여우와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지.  
그러나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지는 거야.  
너는 내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 되는 거고  
나도 너에게  
이 세상 하나뿐인 여우가 되는 거지.”  
- 어린 왕자 중에서

아마 당신은 ‘어린 왕자’의 사막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수많은 소년 중 한 명일 뿐인 어린 왕자와 수많은 여우 중 한 마리일 뿐인 사막여우가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길들임, 즉 관계 맺기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이미 서로에게 길들여진 ‘친구’를 떠올리게 해준다.

친구와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친구와의 관계가 행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왔다. 친구와의 관계에서 얻는 만족감이 행복을 높일 뿐 아니라, 단순히 친구를 사귀는 행위 역시 행복과 관련이 있다. 또한 친구가 베풀어주는 사회적 지지 역시 행

## 소중한 사람이 되는 행복

박슬기 llseulgill@gmail.com

복을 높인다. 그런데 당연한 이야기인듯 하지만, 친구관계가 ‘왜’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일까?

최근 발표된 한 연구는 ‘perceived mattering’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친구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친구가 다른 타인에 비해 나를 얼마나 더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친구를 사귀게 되면,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의논하기도 한다. 가까운 사이가 될수록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여기게 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게 된다. 이렇게 관계가 발전될수록 서로 특별한 친구라는 생각을 하고, 그 친구에게는 타인보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인식이 바로 ‘perceived mattering’이다.

연구팀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친한 친구를 떠올리게 하였다. 자신의 친구를 떠올린 채로 친구 관계의 질, 친구에게 내가 타인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정도(perceived mattering), 그리고 행복을 측정하게 했다. 그 결과 ‘perceived mattering’이 친구관계와 행복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구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친구에게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며, 이는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친구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할 때 친구와 내가 느끼게 되는 ‘특별한 느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또는 과제를 같이 하거나, 가벼운 수다를 떨거나 하는 활동을 하면서

‘너는 나에게 중요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은 서로의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가 서로에게 하나뿐인 사람, 하나뿐인 여우가 된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행복을 위하여 모든 친구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가려고 한다면 가식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중한 친구를 대할 때만큼은 그가 당신에게 특별하고 중요한 친구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더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좀 더 기꺼이 생각해보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보다, 서로에게 충분히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관계 속에서의 행복을 체험하도록 해줄 것이다.**

Demir, M., Çizen, A., Dogan, A., Bilyk, N. A., & Fanita, A. T. (2011). I Matter to My Friend, Therefore I am Happy: Friendship, Mattering, and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 983-1005.

#

# Cross-cultural Empathy

Josh Fuller [josh.aurenk@gmail.com](mailto:josh.aurenk@gmail.com)



A recent article i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noted that individuals in a positive mood were more compassionate and sympathetic in scenarios representing differing cultural norms. Donna Nelson, the author of the study, modified participant mood and then showed participants several vignettes. One vignette depicted a similar culture condition whereas the other vignette depicted a dissimilar culture condition. In the similar culture condition participants read a story about an individual who worked very hard but didn't receive any recognition and was upset. In the dissimilar culture condition the individual worked very hard and was recognized, but was upset because not everyone in the department was recogniz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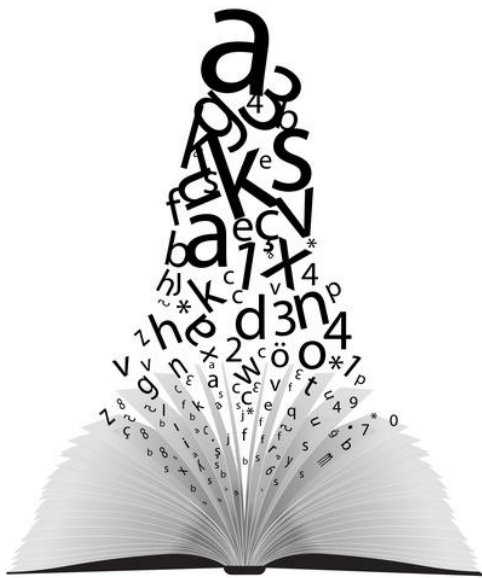
The similar culture condition represents individualistic cultures most often seen in Western societies. In this type of situation in individual works very hard and wants to be praised for their hard work, and even being singled out or awarded is often very appreciated. However, the dissimilar culture condition is more depictive of a collectivistic culture. The individual in this type of situation works very hard but sees himself as a part of the group. Therefore, being singled out and praised while the members of the group are ignored might lead to the individual feeling confused and depressed.

Participants that were in a positive mood showed considerably more perspective taking and empathy when

# Cross-cultural Empathy

Josh Fuller josh.aurenk@gmail.com

they read vignettes that highlighted dissimilar cultural norms. Actually, it should be noted that individuals in the positive affect condition showed the same level of perspective taking when reading similar and dissimilar cultural conditions. This shows that individuals that are currently experiencing a positive mood are just as likely to take the perspective of someone in their own culture, as they are a dissimilar culture.



Lastly, Nelson also found that people in a negative or neutral mood were much less likely to exhibit sympathy or compassion for dissimilar cultural conditions. While these participants showed empathic concern and perspective taking for similar culture conditions, they were less likely to do so for dissimilar culture conditions. Trying

to take the perspective of or feel compassion for a person with a dissimilar or unfamiliar culture requires cognitive flexibility and open-mindedness.

This research shows yet another benefit of positive mood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in respect to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The next time our heads of state need to meet over a tenuous issue, they might do well to partake in a pleasurable activity just prior to that meeting.

Nelson, D. W. (2009). Feeling good and open-minded: The impact of positive affect on cross cultural empathic responding.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 (1), 53-63.

#

# 행복은 전염된다!

김주미 godqhr0001@naver.com



(지은이)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  
제임스 파울러  
(옮긴이) 이충호  
(출판사) 김영사  
(원제) **Connected:** The Surprising  
Power of Our Social Networks and  
How They Shape Our Lives -- How  
Your Friends' Friends' Friends Affect  
Everything You Feel, Think, and Do

제1장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네트워크

제2장  
즐거움도 전염된다

제3장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제4장  
네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다.

제5장  
개인이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력

제6장  
정치적 연결

제7장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들어 있다

제8장  
초연결

제9장  
전체의 힘

〈케빈 베이컨의 6단계 게임〉이라고 들어보았는가? 미국 할리우드 배우 케빈 베이컨과 함께 영화를 찍은 사이를 1단계라고 할 때, 할리우드 배우들이 케빈 베이컨과 몇 단계 만에 연결될 수 있는지 찾는 게임이다. 비단 케빈 베이컨뿐만 아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좁은 세상의 6단계 법칙에 따르면, 나와 수 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생면부지의 사람과도 6단계만 거치면 아는 사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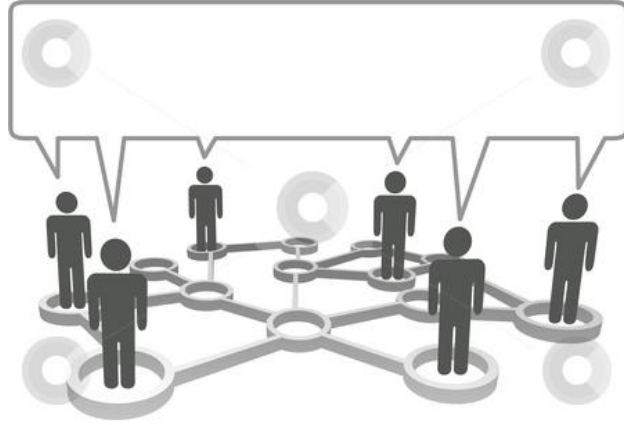
된다고 한다(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불과 6 단계 떨어져있다고 하니, 좀 얼떨떨하긴 하다).

그렇다. 세상은 거미줄처럼 서로 엮여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따라 '행복이 전염'된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 행복은 전염된다!

김주미 godqhr0001@naver.com



니컬러스 크리스태키스와 제임스 파올러는 3단계 인간 관계 법칙을 주장한다. '3단계 인간관계의 법칙'이란 3단계 안에 있는 사람들, 즉 친구(1단계), 친구의 친구(2단계), 친구의 친구의 친구(3단계)에게서 우리는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우리 또한 3단계 거리 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1단계인 친구가 행복할 경우 행복할 확률은 15% 상승하고, 2단계에 있는 사람(친구의 친구)에 대한 행복 확산 효과는 10%, 3단계에 있는 사람(친구의 친구의 친구)에 대한 행복 확산 효과는 6%였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거의 사라졌다고 한다. 요컨대, 네트워크를 따라 나와 3단계 안에 있는 인간 관계가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왜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옆 자리에 앉은 친구'인지, '어떻게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왜 어머니가 우울하면, 가족 모두가 우울해지곤 하는지' 등 인간 관계의 많은 숨겨진 면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의학과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유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정치적 세력의 성장, 종교, 네트워크의 형성에 대한 진화적 설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은,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을 역설적으로 깨닫게 만든다. 네트워크를 통해 전염되는 것은 사랑, 행복과 같이 아름다운 것들뿐만이 아니다. 우울, 공포, 질병도 네트워크로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저자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네트워크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나방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짜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네트워크에 공포와 질병이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요, 행복과 아름다움이 확산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 자신이라고 말한다.

**오늘 아침 당신의 무심한 말 한 마디가 네트워크의 거미줄을 타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떤 진동을 일으켰을지 궁금하다면 한 번 읽어보라. 복잡한 네트워크 체계 안에서 놀랍도록 단순한 행복의 법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 행복 스터디 모임의

### 새해인사

이명아 eswit@paran.com

서울대학교 학부생과 함께하는 행복연구센터 행복스터디모임은 올해 초여름 시작되어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2주에 한 번씩 모여 책과 책 속에서 찾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우리는 어느새 10권 넘는 독서목록을 공유한 사이가 되었다. 52주 행복연습(탈벤샤하르 지음)을 읽으면서는 행복을 위한 일 한 가지씩을 실천하고 와서 경험을 나누기도 했다. 분이가 ‘부모님에게 하루 한 번 전화하기’를 한 경험을 이야기 해줘서, “오늘 밤 10시에 서로 문자를 보내 주고 그때 미루지 말고 안부전화하기”도 해보았다. 우리는 소박한 행복을 찾는 모임이 되어가고 있다

겨울 학기 중 마지막 모임에서는 책 대신 영화 “예스맨”을 보고 느낀 점을 공유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정동 서울 시립 미술관에 ‘하늘에서 본 지구’ 특별전을 보러 나왔다. 우리는 지금 전시를 보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북카페에 앉아 종이컵에 낙서를 하며 사진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유로운 행복과 마주하는 하루다.

2012년 1월 3일에는 헤이리로 MT도 떠나는데, 우리가 엠티에 기대하는 것들도 거창할 것은 전혀 없다. 학년도 전공도 모두 다른 20대가 같이 또 따로 하는 산책, 건강한 밥상, 그리고 동아리 뒷풀이 자리에서 꺼내지 못한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말할 시간, 행복에 대한 글귀를 공유하는 것... 이렇게 삶의 만족을 느끼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북카페에 있는 명언집을 읽다가, 행복을 위한 소소한 시도를 하고, 작은 일에도 의미와 마음을 담아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우리 모임에 딱 어울리는 글귀를 발견했다.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사는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

짧은 글로 행복연구센터 뉴스레터 독자 여러분께 안부를 전하며, 2012년에는 우리 모임 소식을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더 많이 전해드릴 것을 다짐해본다. 더불어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새해에는 행복을 위한 작은 시도들을 가능한 부지런히 이어가 시기를, 쉴 새 없이 작은 스파크를 일으켜 늘 켜져 있는 전구처럼 늘 행복 하시기를, 아이디어를 같이 내고 실천하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기를,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인생을 멋지게 살게 되시기를 기도 드린다.

2011년 12월 정동 프란치스코 작은 형제회 San Damiano 북카페에서, 행복 스터디 모임



#

# 행복수업 1차 시범운영학교 소식통

이명아 eswit@paran.com

행복 교과서 프로젝트 카페  
(<http://cafe.daum.net/happinessbook4u>)에 1차 행복 교과 시범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수업 후기로 올려주신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감사하기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3장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 글 안에서 행복 수업의 중요성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편지입니다.

"선생님,,,우리에게 행복교과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교과서를 읽으니까 내용이 참 좋았어요. 선생님은 행복전도사 같아요. 또 우리에게 행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용.....앞으로도 행복을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

화랑이 (jungsa27) 선생님



용서하기 수업! 미운 사람에 대해 적고 용서하기로 노력한다는 글을 적습니다. 쓴 종이를 마구 구겨서 던지게 합니다. 자기 앞에 떨어진 종이를 펴서 읽고 "대단하다~"라고 용기의 댓글을 달아주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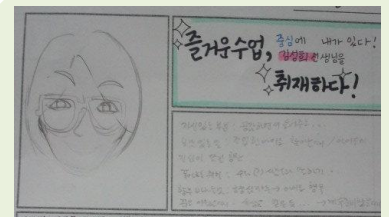
해질무렵에 (kingnice79)선생님



서로를 음미하기 위해서(?) 로션 바르기 활동을 해봤어요

해질무렵에 (kingnice79)선생님

오늘은 교실에 들어 설 때부터 좀 달랐어요. 살짝 기대감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은 느낌이었지만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함께 변해가고 있었나봐요. 여섯번째 행복 수업은 비교하지 않기. 비교하지 않기는 강점 인터뷰 활동을 했습니다. 서로 짝을 이루어 각각 10분씩 강점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문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아이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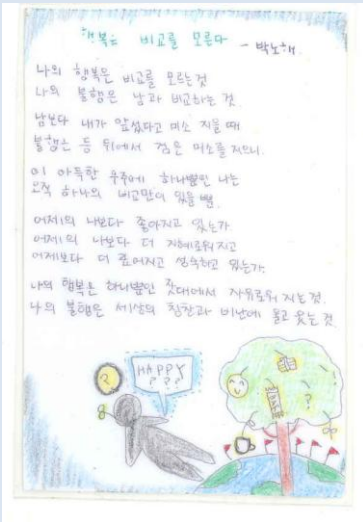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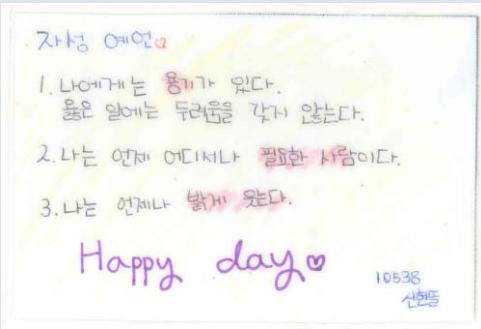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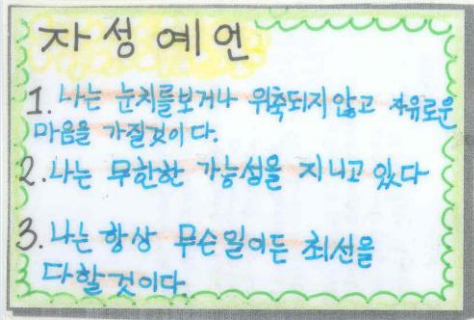
저도 한 아이와 짝이되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제 짝궁이 써 준 저의 기사문입니다.

소리 (noora1026) 선생님

# 행복수업 1차

## 시범운영학교 소식통

이명아 eswit@paran.com



비교하지 않기에서 '자성예언'하기를 했습니다. 자신만의 자성예언을 만들고, 그 뒤에 박노해의 시를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꾸며서 책갈피로 쓰자고 나왔습니다. baandal (baandal)선생님

“혼자 살면서 청소 안하고 방바닥이 시커매져 더러웠는데~  
오늘 갑자기 친구들 와서 양말신고 돌아다녀 깨끗해졌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부천여중 행복팁입니다.  
저희는 수업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우와~ㅋㅋ)  
개그콘서트의 "감사합니다~"코너를 수업 중 활동으로 넣어보려고 한 것이예요.  
해질무렵에 (kingnice79)선생님

(영상은 카페에서만 보기로 해서 선생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부분 캡처 사진은 생략^^하였습니다.ㅎㅎ 그런데 동영상 속 선생님~너무 멋지세요.^^  
-행복연구센터 뉴스레터 편집인)



행복수업을 위해 개포중학교 조은영 선생님께서 행복교과서 9장 "나누고 베풀기"때 아나바다 시장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강연을 간다고 하니깐 학생들이 영상도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어린왕자 (01hong)연구원님

다음 호 뉴스레터에는 행복센터 연구원들의 시범운영 학교 방문기가 이어집니다.  
^^

#



# 2011 동계 행복수업 교사 직무연수

2011 동계 행복수업 교사 직무연수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대상 지역 및 장소
1차	2012. 1. 5(목) ~ 1. 6(금)	서울, 수도권 지역: 서울대학교 사범대 10-1동
2차	2012. 1. 9(월) ~ 1.10(화)	광주, 호남 지역: 전남대학교 사범대 2호관
3차	2012. 1.12(목) ~ 1.13(금)	부산, 영남 지역: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
4차	2012. 1.18(수) ~ 1.19(목)	서울, 수도권 지역: 서울대학교 사범대 12동
5차	2012. 2.20(월) ~ 2.21(화)	서울, 수도권 지역: 서울대학교 사범대 12동

\* 매 회마다 100명씩 총 500여 명의 교장, 교감, 교사, 상담교사, 사서 등 실제로 행복수업을 진행하거나 지원해주실 분들은 물론, 교사와 학생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1일차(10:00~18:00): 등록 및 개강식, 행복이론 강의, 행복수업 워크숍, 사례발표
- ◇ 2일차(09:00~18:00): 행복이론 강의, 교사용지도서 안내, 행복수업워크숍, 사례발표, 종강식

\* 이번 연수에 참석하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소속 학교에서 2012학년도 1학기에 행복수업을 진행하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는 2012년도에 행복수업을 진행하실 학교에 행복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포함한 일련의 교수-학습 자료를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 연수 때 소개하게 될 시범학교의 사례발표는 각 학교의 특색에 맞는 최적의 행복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